

20세기 전반 천도교 지도자의 서양 인식과 신문명의 비전

김용휘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머리말

1. 손병희의 서양에 대한 인식과 신문명

1.1 서양 인식과 ‘문명’의 개념

1.2 인여물개벽과 3.1운동의 정신

2. 1920년대 천도교 신파의 서양 인식과 개벽

2.1 신파 청년지도자들의 서양 인식과 서양철학 수용

2.2 신파 문화운동의 성격과 한계

3. 천도교청우당의 신국가 비전과 개벽의 꿈

맺음말

머리말

문명사적으로 볼 때 19세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서양 제국주의의 발흥과 확산이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에서 받은 서구의 충격과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이 19세기와 이후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론 발전된 물질문명, 과학기술과 민주정치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의 쓰나미였으며, 한편으론 기독교 문명의 거센 유입이라는 양면성을 띤 것이었다. 이는 유럽 문명의 양대 축을 형성했던, 합리성에 기반한 그리스 문명과 유일신앙에 기반한 히브리 문명에 대한 이중적 충격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제3세계 민중들은 엄청난 정치·경제적 혼란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자신들의 전통이 부정당하고, 믿었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신적 아노미를 겪어야 했다.

이를 조선은 ‘서세동점’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이 19세기 서구의 충격에 대응했던 방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위정척사와 개화, 동학이 그것이다.¹⁾ 앞의 둘은 유교 지식인의 입장에서 성리학적 가치 수호를 위한 극렬한 저항 내지는 현실적 수용이라는 입장의 차이로 나타났다면, 동학은 저항과 수용이라는 방식을 넘어, 민중의 입장에서 서양의 충격을 흡수하되 다시 한국적 사유로 녹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세계적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인류문명사에서 가장 극적인 정신적 도약을 이룩했던 ‘축의 시대’는 청동기문명에서 철기문명으로 전환되던 시기 땅을 놓고 벌인 영토병합의 대각축의 장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도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축의 시대의 끝이 ‘제국’의 탄생이었다. 반면 19세기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의 탄생은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신제국’의 탄생에서 기인한 제3세계 민중의 고난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학은 ‘동국의 학’으로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 ‘우리학문’²⁾이자 ‘우리의 도(吾道)’³⁾였다. 그 핵심적 내용은 ‘시천주’의 새로운 천관이며, ‘무위이화’의 자연한 이치이며, 수심정기의 자력적 수행이다. 또한 실천적 의미에서는 사인여천과 경물(敬物)의 삶,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전통, 수평적 평등성, 외세와 학정에 대한 민중적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53)

1) 참조: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5-10.

2) 김용휘, 『우리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56.

3) 『동경대전』, 「논학문」, “吾道, 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저항성, 그리고 현세적 유토피아 사상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동학의 탄생은 동양의 유불선 전통에다가 서학을 비판적 수용하면서 ‘동도의 변혁’을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⁴⁾ 동학을 ‘동도주의(東道主義)’라고 할 때 ‘동도’는 동양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전통사상과 서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걸러내면서 통합시킨 동서 회통의 도이자, ‘동국의 길’로서의 ‘동도’이다. 이는 이전의 ‘동도의 변혁’을 통해 새롭게 낸 ‘오래된 새 길’로서의 ‘천도’이자 우리의 길(吾道)을 의미한다.⁵⁾

흔히 동학-천도교는 한반도 근대성의 사상적 출발점을 찾고 이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⁶⁾ 그런데 동학을 계승하여 근대적 종교체제로 개편한 천도교에 대한 평가는 서구적 근대를 적극 수용하여 문명개화를 추구하는 노선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다.⁷⁾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손병희와 1920년대 주류를 형성했던 천도교 신파에 대한 평가는 “동학의 동도주의를 포기하고 정신문명의 서구화-근대화를 도모하는 민족개량주의적 노선을 추구했다”⁸⁾고 보거나, “민족개벽을 통한 민족의 지위·권익의 향상이란 일제와 대화·타협하는 가운데 ‘조선민족 자치’를 실현하자는 체제내적 논리였으며, 이러한 논리가 현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동방주의의 제창으로 나타났다”⁹⁾며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과연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한 손병희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천도교 지식인들은 동학 시대의 동도주의를 포기하고 서구화-근대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했던 것일까? 특히 1920년대 『개벽』 잡지를 이끌었던 천도교 신파 지식인들의 입장을 단순히 민족과 계급, 친일과 반일, 저항과 협력의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그들이 정작 추구했던 본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¹⁰⁾

4) 정혜정은 동도서기문파는 시대의 변혁에 따라 동도를 개혁해내지 못하였고 서도를 걸러내어 자신의 도에 결합시키는 주체적 노력이 없었던 반면 동학-천도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동도의 변혁’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 해안, 2001), 365-366.

5) 김용휘, 「천도교의 운동노선과 동도주의」, 『종교문화연구』, 27(2016, 12), 83.

6) 박민철, 「동학 천도교 사상의 모던적 징후」, 『시대와 철학』, 81(2017, 12), 9.

7)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176, 383;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동학·천도교편』, (서울: 해안, 1996), 148; 조규태,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이민인종연구』, 3(2010), 66-67.

8) 김진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353.

9)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1999, 6), 271.

10) 『개벽』 연구의 최일선에 있는 최수일은 『개벽』의 중심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개조주의의 기저에 잠복해 있는 최재우의 ‘개벽사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수일, 『‘개벽’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해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사상과 운동을, 단순한 저항과 타협, 민족과 계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그들이 참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의 지향점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¹¹⁾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천도교의 ‘근대’를 개벽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¹²⁾ 연구대상은 천도교 개편의 중심에 있었던 손병희와 1920년대 천도교의 주류를 형성했던 신과 지식인 이돈화, 김기전을 중심으로 하고, 시기는 천도교 개편 시기부터 해방공간까지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손병희의 서양에 대한 인식과 신문명

1.1 서양 인식과 ‘문명’의 개념

서른셋의 나이에 복점군 통령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해 처절한 패배를 당한 이후, 서른일곱에 무너져가는 교단의 책임을 떠안은 손병희는 한 세기가 전환되는 1900년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깊었다. 동학을 재건해야 하는 중책과 함께 물밀 듯이 밀려오는 서양문화, 그리고 외세로부터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책무가 무겁게 그를 짓눌렀던 것 같다. 그는 마침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1901년 그는 서양의 발전된 문명을 배우고 천하대세를 살피기 위해 외유를 결행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지난 갑오년에 서양 무기의 위력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스승 최재우에 의해 희미해져 가던 동아시아의 천도(天道)가 다시 밝혀졌지만, 물질은 서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옛날 문명의 풍화가 동양에서 울렸더니, 이 세상 운수는 곧 폭양의 기운이 천하에 처음으로 밝아 크게 한번 변하고, 크게 한번 열리는 수”¹³⁾라고 하였다. 옛날엔 문명이 동양에 있었으나, 지금의 운은 확실히 서양에 있다는

연구』, (서울: 소명출판, 2008), 426.

11) 식민지 지식인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응을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다각적으로 보려고 한 시도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6).

12)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9(2019, 2), 1-3.

것을 인정한다. 또한 “서양 사람은 이 세상의 운을 타고 확실히 동양 사람보다 투철하여 각각 활동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연구하는 가운데 재주가 늘어 기계가 편리하여 일마다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가 밝아 임금과 신하의 분의를 서로 지키어 잃지 않으므로 공화의 정치와 입헌의 정치가 세계에 문명을 하였고 당세에 이름을 드러내니, 이것이 동서양 번복의 이치가 아닌가.”¹⁴⁾라고 하여 특히 기계의 발달과 정치적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 반면 지금 동양 사람들이 세 가지에 미혹되어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서양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제 만약 그 정치를 한번 변하여 천명을 공경하고 민심을 순히 하며 인재를 길러 그 기예를 발달시켜 빛나고 빛나는 문풍이 찬연히 다시 세상에 밝아지면,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가히 이룰 것이니, 오직 우리 동반구 가운데 뜻있는 군자는 생각하고 생각할지이다.”¹⁵⁾ 비록 지금은 동양이 정치적으로도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래 고대 동양의 정치가 추구하던 경천순천하고 민심을 친심으로 공경하고 인재를 기르고 기예를 발달시키면 다시 빛나는 문풍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현재의 서양문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야 할 표준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양의 고대 정치를 부정하고 않고 있다. 오히려 고대 경천(敬天) 순천(順天)의 도덕정치를 되살리면 동양의 문명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스승 수운이 말한 ‘가면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無往不復之理)’인 것이었다. 이를 보면 그의 문명관은 ‘동양은 야만, 서양은 문명’이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보거나, 문명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직선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문명관이 아니라, 시운에 따라서 서로 갈마드는, 그래서 다시 서양에서 동양으로 올 수 있다고 보는 순환적 문명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백성을 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교(主教)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므로 예나 지금에 대인과 지사가 이어 나서 각각 그 나라에 주교를 세우니, 이것이 백성을 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정책이니라. [...] 고기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밝기가 바다 밖의 육

13) 손병희, 『의암성서법설』, 「명리전」, (천도교중앙총부 편, 『천도교경전』, 1992), 586.

14) Ibid., 588.

15) Ibid., 589-590.

지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성인의 도가 한울까지 사무쳤다 하여도 뜻이 한울 높고 땅 두터운 사이를 지나지 못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사람은 바로 한울 사람이요 도는 바로 천도이니, 능히 천도의 본성을 지키는 사람이면 때가 다르고 도가 다르나 지혜와 계책이 서로 비치고 의사가 같을 것이니 합하면 한 이치가 되느니라.¹⁶⁾

여기서 주교는 동학, 천도교임을 말할 것도 없다. 동학 천도교가 밝힌 천도의 진리로 백성들을 화하게 하고 좋은 풍속을 이룬 다음 서양의 물질문명과 기술, 발달한 정치적 제도와 경제, 은행 제도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이 아우러진 도덕문명을 열자고 한 것이다. 서양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동도서기’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동도’는 동학 천도교의 도, 즉 천도이다. 그러므로 그의 참된 의도는 동학천도교의 동도에 바탕해서 서양을 융합함으로써 동서통합의 새로운 문명을 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손병희는 1902년 일본에서 서양문물을 접하고 천하대세를 살피고 나서 외세에 둘러싸인 약소국 조선의 앞날을 위해 <삼전론>을 집필하였다.

방금 천하대세가 운과 함께 나이감으로 사람의 기운은 더할 수 없이 강하고, 기교는 더할 수 없이 정교하여 기예의 발달과 동작의 연습이 이에 극진하였느니라. 아무리 그러해도 강하다는 것은 병력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에 나아가 굴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요, 기교는 교활한 교태가 아니라, 일을 통달하여 예리함을 타는 것을 말함이니, 만약 앞선 무기와 군센 무장으로써 병력이 서로 접전하면 강약이 서로 나누어져 인도가 끊어지리니, 이 어찌 천리이겠는가. 세계 대세를 살펴보니 온 세상이 모두 강해져서 비록 싸운다 할지라도 같은 적수가 서로 대적하면 싸움의 공이 없으리니, 이것을 「오수부동」이라 말하느니라. 그러면 무기로만 싸운다는 것은 자연히 쓸데없이 되는 것이요,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도전이요, 둘째 재전이요, 셋째 인전이라. 이 세 가지를 능히 안 뒤에야 가히 문명에 나아가 보국안민과 평천하의 계책을 가히 얻어 이루리라. 이리므로 말을 거듭 청하여 삼전론을 말하노라.¹⁷⁾

손병희는 문물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정치는 흥망이 있는 것이라 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운수가 바뀌어 서양의 문물이 더욱 발전되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강함은 병력의 강함이 아니라 의에 나아가 굴하지 않음이고, 기교는 일에 통달하

16) Ibid., 591-592.

17) 손병희, 『의암성사법설』, 「삼전론」, 628-630.

여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력으로만 이기려 해서는 안 되며 무력 외에 다음의 세 가지를 갖추야 비로소 도덕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세 가지는 도전(道戰), 재전(財戰), 언전(言戰)이다. 도전은 사상전, 재전은 경제전, 언전은 외교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도전으로, 진정한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에 분명한 사상이 있어야 한다.

첫째, 도전이니, 세계 각국이 각각 문명의 도를 지키어 그 백성을 안보하고, 그 직업을 가르쳐서 그 나라로 하여금 태산같이 안전하게 하니, 이것은 별 수 없이 도 앞에는 대적할 자 없다는 것이니라. 병력으로 치는 곳에는 아무리 억만 대중이 있다 할지라도 억만심이 각각이요, 도덕이 미치는 곳에는 비록 열 집의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 같은 덕이라, 보국의 계책이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그러면 천시, 지리가 쓸 곳이 없지 아니한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지금히 잘 다스리는 시대에는 논밭이 넉넉하고, 비와 바람이 순하여 산천초목이 다 생기가 넘쳐 활발함이 있다.하니, 천시 지리가 다름 아니라 인화 중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¹⁸⁾

도전은 사상전을 말하는 것이니, 분열된 민심을 통일하고 인화(人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그 나라에 사상과 학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양 문물이 앞섰다고 무조건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되, 정신적 근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글을 보아도 그는 무조건 서양을 추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 안에서 참된 도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손병희는 삼전론에 입각해서 조선의 혼을 되살리고, 나라 재정과 백성의 민생을 살피며, 조선이 외세를 벗어나서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방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길은 천도교의 사상을 통해서 주교를 세우고 수운이 다시 깨달아 밝힌 도와 덕을 다시 되살려서 이 땅에 펼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동양 고대 도덕 정치의 이상 위에 근대적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도덕’이 유가적 도덕,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성리학적 윤리로서의 에티크(ethic)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도덕은 조성환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도덕의 출발이 하늘이라는 ‘동(同)’ 즉 평등의 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分)’ 즉 차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유학적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별과 차별과 원한의 선천도덕

18) Ibid., 633-634.

에서 평등과 평화와 상생의 후천도덕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 개벽학의 신도덕이었다.¹⁹⁾ 여기서 도덕은 도와 덕, 수운의 표현으로 하자면 ‘천도와 천덕’²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 인여물개벽과 3.1운동의 정신

손병희에게 있어서 ‘문명’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개벽’이다. 손병희는 당시를 사람과 물질이 개벽하는 때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쌀쌀하고 쓸쓸하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에 불어오니, 우거졌던 푸른 초목이 아무리 현재의 모양을 아직 보존하고 있지만은 하루밤 지나면 산에 가득차 누렇게 떨어지는 가련한 서리맞은 잎뿐이리니, 이제 이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그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적막한 서리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질이 개벽하는 때니라.²¹⁾

여기서 서쪽에서 무섭게 죽이는 가을바람이 불어온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도 손병희는 서양을 무조건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형한 물질이 개벽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참다운 문명을 이룰 수 없으며, 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무형의 정신개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스스로 높은 체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정자로 개벽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알 지 자로 개벽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생각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²²⁾고 하였다. ‘사·정·지’는 동학의 주문,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만사지(萬事知)를 의미한다. 주문의 시(侍)·정(定)·지(知)의 주문 수련을 통해 정신을 개벽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바꾸는 이신환성(以身換性) 공부를 강조했다. ‘이신환성’은 1910년대 손병희가 가장 강조했던 개념으로 육신이

19)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10-11.

20) 『동경대전』, 「포덕문」, “故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乃成君子, 至於至聖, 其不欽歎哉.”

21) 손병희, 『의암성사법설』, 「인여물개벽설」, 670-671.

22) Ibid., 667-668.

아니라 성령이 본래의 자기임을 깨달아 성령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²³⁾ 그가 당시 이신환성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의 시대 배경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투쟁을 하라는 실천적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유가적 인격과 다른 동학적 주체의 형성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손병희는 당시의 서양이 주도하던 천하대세를 현실로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결코 따라잡아야 할 표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동학-천도교의 수도를 통해서 정신을 개벽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손병희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3.1운동은 제국주의적 탐욕과 군사적 폭력에 맞서 세계 최초로 일으킨 거족적인 독립투쟁이었으며, 비폭력 평화운동이자 온 민족이 하나로 일어난 대통합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분과 특권과 낡은 전통과 굴레를 깨뜨리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민주혁명이었다.²⁴⁾ 무엇보다도 3.1운동은 독립운동을 넘어, 식민, 피식민의 이분법을 넘어 이 땅에 진정한 도덕 문명, ‘도의적(道義的) 신문명’을 열고자 했던 개벽운동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독립선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아! 신천지(新天地)가 안전(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는 거(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來)하도다. 과거 전세기(全世紀)에 연마단련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始)하도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올 것임을 비전처럼 제시하며 신문명의 서광을 희망하고 있다. 조성환은 “「독립선언서」는, 마치 최제우나 최시형이 다시 개벽과 후천개벽을 선언했듯이, ‘도의의 시대’를 선언하는 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동학의 개벽이 도덕에 의한 새 시대의 개척, 즉 도덕개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도의의 시대의 도래”는 동학의 도덕개벽과 다르지 않다.”²⁵⁾고 하면서 「삼일독립선언서」를 개벽의 관점에서 다시 독해하고 있다.

따라서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이었으며, 비록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새로운 국가의 수립으로 이어진 정치혁명이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의적 신문명, 즉 도덕문명을 열망한 문명적 개벽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병희가 진정 추구했던 것

23) 김용휘, 『손병희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86.

24) 박재순,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서울: 흥성사, 2015), 6-7.

25)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10.

은 단순한 ‘문명개화’가 아니라 ‘문명개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양의 왕조적 전 제정치로의 복귀가 아님은 물론이지만, 서양의 제국주의적 질서도 아닌, 그 위력적 힘의 질서 뒤에 오는 도의적 신문명으로서, 그것은 고대 동양적 덕치의 이상이 서양의 민주정치와 만나되 동학적 신인간 창조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서통합의 신문명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1920년대 천도교 신파의 서양 인식과 개벽

그동안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에 대해서, 특히 신파의 문화운동에 대해서 ‘민족 개량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부르조아민족주의 우파’ 등으로 파악하고, 그 운동노선은 실력양성을 통한 자본주의의 근대문명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그들의 지향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라는 틀로, 또는 저항이나 타협이라는 관점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공언했던 ‘개벽’의 관점에서 그들의 발언과 지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1920년대 천도교의 주류로서 『개벽』 잡지를 중심으로 문화운동과 청년당 운동을 했던 신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이돈화와 김기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서양 인식과 그들의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신파 청년지도자들의 서양 인식과 서양철학 수용

1920년대 초 이돈화를 비롯해 문화운동에 앞장섰던 천도교 청년들이 서양 문명과 사상을 열심히 배우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인식한 “서양의 문화는 자율적이고, 창조·진취적이며, 조화·협동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문화를 건설하며,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신사회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²⁶⁾ 그렇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서구지향적인 문명개화만을 역설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 인물로 이돈화는 서구적 근대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동하는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는 서구적 근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천도교의 인내천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²⁷⁾ 이돈화는 “원래 어떤 민족의 문화건설에든지

26) 조규태,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70.

그 민족의 문화는 결코 그 민족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불가능하기에 그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상과 조화하여 얻은 결과를 신문화라고 한다. 조선인의 신문화 또한 조선인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신사상과 결합한 후에야 완전한 문화의 성립을 기대할 것이다”²⁸⁾라고 하여, 어디까지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신사상과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동학사상을 배경으로 필요한 서양의 문화와 사상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²⁹⁾

김기전의 서양철학 소개 역시 마찬가지이다.³⁰⁾ “소춘은 자신이 소개하거나 접했던 서양 철학 및 이론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뒤 이를 자신의 글속에 담으면서 사유의 심화확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의 모색을 위해 새로운 사유의 모델을 모색하고 제시할 때, 비단 서구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았고 동서를 막론했다.”³¹⁾ 특히 김기전은 이미 서구의 현대문명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문명이라 함은 주로 서구인의 문명을 지칭함이다. 그런데 서구인의 문명은 인도의 타교이 일찍 지척한 바와 같이 성벽(城壁)과 연와(煉瓦)를 이웃하여 성장된 문명이다. 그래서 먼저 ‘구분하고 다음에 그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구미문명의 유일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정복과 격리가 유일의 특징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계급으로부터 계급을, 지식으로부터 무지를,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이주 엄연히 분리(分離)케 하였다. [...] 그러나 극단으로 구분을 일삼고 권력을 중심으로 삼는 현대의 문명은 그 앞길이 길지 못할 것이다.³²⁾

그는 이렇게 서구 문명의 특징을 정복과 격리로 이해하고, 분리와 권력을 중심으로 삼는 그 문명이 오래갈 수 없다고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서구문명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인내천주의에 부합하는 서양사상과의 창조적 결합

27) 황종원, 「양수명과 이돈화의 근대화에 대한 견해 및 그 철학적 근거에 대한 비교 연구- 한중 신문화운동 시기의 저작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36(2013, 3), 347.

28) 이돈화, 「신문화(新文化)는 무엇에 의(依)하여 건설(建設)하라」, 『천도교회월보』 131(1921, 7), 3.

29) 참조: 정혜정, 「이돈화의 인내천주의와 서구 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2010, 6); 김용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서양철학 수용」, 『범한철학』 77(2015, 여름).

30) 그가 소개한 서양철학자는 니체, 루쏘, 윌리엄 제임스, 러셀, 카펜터, 디즈겐, 차야노프 등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을 보라. 허수, 「1920년대 초 ‘개벽’ 주도층의 근대사상 소개양상」, 『역사와 현실』, 67(2008).

31) 이병대, 「소춘 김기전(小春 金起田)의 서구 철학·사상 수용 특징- 저술의 분류와 개관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 78(2017, 3), 170.

32) 김기전, 「활동에서 초월에」, 『개벽』, 20(1922, 2), 11.

을 통해 동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 했으며, 인내천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사상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천도교 신파 지도자들은 서양의 현대문명에 대해서도 마냥 동경과 선망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당시의 문화운동과 실력양성운동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찬성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들어와서 “오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조선 내지에 있는 문화운동자, 즉 아직 사회운동으로 돌아서지 않고 또는 무력**주의로 환원치 않고 오직 실력양성주의를 고조하고 있는 그네들이다.”³³⁾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기전은 “조선 사람의 다수는 어느덧 이 현상 밑에서의 문화운동·실력양성의 성과가 얼마나 미미하고 또는 불철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새로운 걸음을 옮기기로 함에”³⁴⁾라고 하면서 명확한 ‘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의’는 ‘인내천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성주현에 따르면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를 전후하여 청년운동의 핵심인물은 물론이고 지식 청년 대중들 사이에서도 문화운동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역할을 주목하였다고 한다.³⁵⁾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신파 청년들에게도 전해졌고 이것이 이후 천도교청년당 창립으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탐색이었다. 그들은 이미 1920년대 초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었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1923년 『개벽』에 사회주의의 소개가 본격화되면서 고조되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이 군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오는 것임과 인류의 행복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신사회를 건설함에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³⁶⁾ 이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 형성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이돈화는 ‘자본주의의 인간화’³⁷⁾를 주장하며 ‘사람본위’를 부르짖기도 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1923년 이래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에 깊이 공명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계급의식과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주의의

33) 미상, 「점점씩 이상해 가는 조선의 문화 운동」, 『개벽』, 44(1924, 2), 3.

34) 김기전, 「조선고(朝鮮苦)」, 『개벽』, 49(1924, 7), 24.

35) 성주현, 「천도교 청년당의 지도이념과 조직체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2009), 382.

36) 「歐洲大戰 以後의 民族의 理想의 進化」, 『개벽』, 33(1923, 3), 18.

37) 이돈화, 「생명의 의식화, 의식의 인본화」, 『개벽』, 69(1926, 5), 9.

유물론이나 민족의 현실을 무시한 국제주의적 계급투쟁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³⁸⁾

그래서 그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느 일방에 서지 않고 그 둘을 아우르려고 하였다. 그것이 표명된 것이 ‘범인간적 민족주의’였다. ‘범인간적 민족주의’는 천도교청년당이 내세운 새로운 ‘주의(主義)’였다. “청년당은 천도교의 사회화를 위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를 수 있는 ‘범인간적 민족주의’를 제기하였고 조선민족의 사상으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⁹⁾ “범인간적 민족주의라 함은 역사상 완고한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전세계의 민족을 동일한 인류라 하는 평등한 조건하에서 각 민족이 자기 자연한 상태 하에 공동 평등의 행복을 수(受)함”⁴⁰⁾을 표방하였다. 기존의 부르조아 민족주의운동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민족’을 단위로 하되 그것을 넘어선 운동을 고민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곧바로 조선의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회주의와는 운동노선과 그 주도권을 놓고 경쟁적 관계를 이어간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1931년 이돈화는 동학사상에 기초하면서도 사회주의를 넘는 대안의 제시를 위해 『신인철학』을 간행하였다.⁴¹⁾ 허수에 의하면 이돈화는 신인철학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상당 부분 차용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되, 그 방향에 있어서는 생산양식의 혁명적 재편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달리, ‘도덕적 인간’ 형성에서 찾으면서 ‘자본주의 비판과 비사회주의적’의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⁴²⁾ 즉 이돈화의 관심은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과제보다는 인간해방에 보다 중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병태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서양철학을 통해 ‘수운주의’를 강화한 시도였다고 인정하면서 “서구이론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역동성을 드러내기에 사상사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⁴³⁾고 평가하고 있다. 이돈화는 사회주의에 깊이 공명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주의로는 ‘도의적 신문명’의 건설이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학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8) 김용휘, 「천도교의 운동노선과 동도주의」, 96.

39) 성주현, 「천도교청년당의 지도이념과 조직체계」, 398.

40) 「범인간적 민족주의」, 『개벽』, 31(1923, 1), 8-10.

41) 이병태, 「이돈화 ‘신인철학’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시대와 철학』, 76(2016, 9), 213.

42) 허수, 『이돈화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11), 242-243.

43) 이병태, 「이돈화 ‘신인철학’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233.

요컨대 당시 천도교 지식인들의 서구사상 수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동학의 ‘시천 주’라는 철학적 명제를 중심으로 서구철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혜정 역시 “천도교 지식인들에 의해 수행된 서구 근대철학의 수용은 조선 자기의 현실을 반성함과 더불어 조선의 결핍된 부분을 인정하고 동학의 innate 사상에 입각하여 서구사상을 수용, 비판한 것이다.”⁴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황종원은 『신인철학』의 의의를 생명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전통철학의 생명관을 계승한 동학의 생명본체론을 기반으로 그것과 가장 친화력이 있다고 판단한 베르그손의 생명철학을 비롯하여 이노우에의 실재론 및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 개념 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일종의 동서철학이 융합된 우주관을 세웠다”⁴⁵⁾고 동서철학의 융합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물론 그 융합은 결과적으로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분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박민철이 지적하고 있듯이 “동학천도교는 동(東)과 서(西)의 지리적 구분 속에서 ‘동’이라는 자기인식과는 별도로 그 사이에 있었던 ‘경계의 사유’이자,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관통하면서 서구적 근대를 추종했지만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분열된 식민지적 사유’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⁴⁶⁾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2.2 신과 문화운동의 성격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도교 신과의 지향을 단순히 문명개화나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추구, 또는 당시의 개조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⁴⁷⁾ 그들의 지향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요약한 용어는 바로 ‘개벽’이다. 잡지 이름을 ‘개벽’이라고 한 것도 그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물론 ‘개벽’은 수운의 ‘다시 개벽’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해월과 의암을 거치면서 그 함의가 조금씩 변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다.⁴⁸⁾ 1920년대초 『개벽』지를 시작했을 때의 신과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도 ‘개벽’의

44) 정혜정, 「이돈화의 innate천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2010, 6), 145.

45) 황종원, 「이돈화의 우주관과 인간관이 지니는 동서융합적 특징 및 생명철학적 의의 - ‘신인철학’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6(2016, 8), 599.

46) 박민철, 「동학 천도교 사상의 모던적 정후」, 10.

47) 이승렬, 「일제하 천도교 계열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와 인간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2006, 3), 126.

48) 윤승용은 동학을 비롯한 한국 근대신종교의 개벽사상은 총체적 사유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보다 집단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체와 객체, 본질과 현상 등 이원론적인 본질적인 사고와 개인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서구 근대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의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맥락에서 개혁은 그 출발에서는 ‘의식개조’, ‘사회개조’ ‘현실개조’ 정도로 번역되거나 이해되어도 무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운에서부터 그것은 이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명적 전환’, 삶의 원리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기에, 단순히 개조나 개혁의 의미로 다 포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개혁’은 모호한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차라리 실천의 과정 속에서 채워져야 하는 ‘공백’이었다. 개혁의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 차츰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미 개혁 창간호에서부터 그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창간호에 실린 여섯편의 글들은 크게 ‘개인’, ‘사회’, ‘민족’의 세 범주에서 ‘개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개인’ 개혁은 여성해방을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창발성을 억제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유교적 도덕과 윤리를 타파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고, ‘사회’개혁의 경우에는 농촌의 사회적 모순 즉 지주와 소작인의 모순 완화에 시선이 놓여있었다. ‘민족’개혁의 경우에는 직접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민족간 평등 및 민족자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⁴⁹⁾

그들이 1923년 기존의 문화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담당할 ‘주의적 단체’로서 천도교청년당을 결성했을 때, 천도교청년당이 내세운 것 역시 ‘개혁’이었다. 청년당은 이당개혁(以黨開闢)의 단일정신으로써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을 통한 지상천국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다.⁵⁰⁾ 그래서 천도교청년당은 ‘지상천국 건설’을 주의로 삼고, ‘사람성자연에 맞는 제도의 실현’과 ‘사인여천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의 수립’을 강령으로 삼아 농민, 노동, 여성, 소년 등 7개의 부문운동에 주력하였다. 『천도교청년당소사』를 집필한 초기간은 “천도교의 인내천운동은 후천개혁운동인 동시에 인문개혁운동-즉 인류의 신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천국건설이란 말은 후천 신문화 건설운동이라 말하여도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청년당운동이 개혁운동이자 신문명운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⁵¹⁾ 하지만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했고, ‘사람성자연’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실현과 사인여

한다. 윤승용, 「한국의 근대신종교,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착과 그 한계」, 168.

49) 이승렬, 「일제하 천도교 계열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와 인간관」, 142.

50) 초기간, 『천도교청년당소사』, (정성: 천도교청년당본부), 1935, 71.

51) Ibid., 82-83.

천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의 수립 역시 구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 삼대개혁은 『신인철학』에서 좀더 정리되는데, 여기서 정신개혁은 선천시대의 역사적 사회적으로 일어난 현재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여 후천사회 창설의 새 의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며, 민족개혁은 민족의 문화와 생활 정도를 향상 발전하도록 하는 개혁이며, 사회개혁은 사회기구의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의 체제를 인간본위의 표준으로서 건설하는 것으로 경제문제 외에 다시 인간적 발취라는 고차원의 문제를 포함한다.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경제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인간격에 바탕하여 인간의 이상을 보다 고상한 전체의 한 울에, 무궁에, 진리에 두어서 우주적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²⁾ 그런 점에서 이 규성이 “이돈화의 『신인철학』은 소유투쟁의 성격을 갖는 계급투쟁을 더 높은 인문주의적 가치와 영적 가치를 승화시키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⁵³⁾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한편 허수는 이돈화나 천도교의 입장을 민족운동이나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관행을 넘어 종교적 사회운동의 차원, 즉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돈화의 사상은 인간해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고 민족해방이나 계급해방은 부차적으로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돈화는 민중의 곤궁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과 ‘해방’의 문제 설정을 공유했다. 반면 그는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이나 계급운동의 물질적 편중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제약이나 한계를 초월하는 해방을 전망했다. 그 해방이 제도나 조직, 물질 등의 요소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한 도덕적 실천과 내적 개조의 특성을 띤 인간해방을 지향했던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이돈화가 삼대개혁을 통해 이돈화가 추구했던 최종적인 목적은 ‘신인간(新人間)’의 새로운 주체 형성이었으며, 이를 통한 문명적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문화운동과 청년당운동에서부터 줄곧 이어져 온 문제의식이자 지향점이었다. 그들의 문제의식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도덕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황종원은 이돈화의 사유를 중국의 양수명과 비교하면서 “두 인물 모두 서구적 근대화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고,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까지 꿈꾸었다는 점”⁵⁵⁾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52) 이돈화, 『신인철학』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2³⁾), 146-158.

53)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126.

54) 허수, 『이돈화 연구』, 257.

55) 황종원, 「양수명과 이돈화의 근대화에 대한 견해 및 그 철학적 근거에 대한 비교 연구」, 323.

이렇게 그들은 1920년대초부터 『개벽』 잡지를 통해서, 또한 청년운동을 통해서 ‘개벽’의 사회적 실현을 치열하게 모색했다. 그것을 여성, 농민, 노동자, 소년, 청년 등의 부문단체를 통해 전개했다. 그것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급력을 가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적어도 『개벽』 잡지의 출판 분야, ‘조선농민사’를 통한 농민운동, 그리고 특히 김기전과 방정환이 중심이 된 어린이, 소년 운동에서 큰 좌표를 남긴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그 노력은 여러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검열과 감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신구파의 갈등과 분리로 인한 내부 역량의 한계, 그들의 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미비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현실적 문제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구도를 넘어 보다 보편적 ‘인간해방’을 추구했으며, 일원론적 ‘생명철학’에 바탕해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을 꾀했다는 것이 한편으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서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었다. ‘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와 신관에 대한 인본주의 해석이 강화되면서 동학 초기의 영성과 종교성의 약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신인간 형성은 결국 수련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의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청년들이 고요히 앉아서 수도를 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수도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근본을 놓쳤다. 내적 자기완성은 ‘영세불망’의 오랜 인고의 시간을 통해 영글어지는 것인데 이를 진화론적 필연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조급했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을 그냥 실패라고만 단정짓긴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민은 그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이에서 제3의 길을 고민했던, 특히 생명을 화두로 근본적 사회의 변혁을 꿈꾼 사람들에게로 이어졌으며, 그것이 장일순의 ‘한살림’ 생명운동으로, 그리고 방정환을 계승한 이원수, 이오덕, 그리고 권정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전,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자들을 위한 근본적 ‘인간해방’ 운동이지⁵⁷⁾ ‘생명평화’ 운동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56) 김용휘, 『천도교의 운동노선과 동도주의』, 96.

57) 이주영, 『어린이해방』 (서울: 우리교육, 2017), 참조.

3. 천도교청우당의 신국가 비전과 개혁의 꿈

해방공간에서 천도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건국이념을 내세워서 좌우를 합작하고 분단을 저지하고 진정한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조선의 특수한 사정에 기반한 ‘신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청우당의 정치이념으로 나타났다. 천도교는 “해방 후 남북 모두에 연결된 국가건설론을 가진 종교·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검토는 남북의 두 체제에 모두 연결되면서도 그와 다른 독자적 길을 걸었던 ‘제3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종교적 국가·사회개혁론의 흐름을 아울러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⁵⁸⁾

청우당은 주지하다시피 산·구파로 분열되어 있던 천도교단이 1930년 12월 23일 전격 합동함에 따라 1931년 2월 산·구파의 천도교청년당과 천도교청년동맹이 합쳐서 붙인 이름이다. 1939년 해체되었다가 해방이 되자 다시 부활하여 남조선청우당과 북조선청우당이 각각 결성되었다. 1945년 9월 14일 천도교청우당부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31일 남쪽에는 김기전을 위원장 체제로, 북쪽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달현을 위원장 체제로 청우당이 부활되었다.⁵⁹⁾ 여기에는 아직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동서를 통합하는 신문명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1945년 10월 31일 김기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채택한 강령 4개 조상에는 청우당이 추구하고자 한 새로운 국가의 구상이 간략하나마 제시되어 있다.

- 첫째, 민족자주(民族自主)의 이상적 민주국가의 건설을 기함.
- 둘째,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에 맞는 새 윤리 수립을 기함
- 셋째,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신생환이념에 기(基)한 신경제 제도의 실현을 기함.
- 넷째, 국민개로제(國民皆勞制)를 실시하여 일상보국(日常輔國)의 철저를 기함.⁶⁰⁾

청우당의 강령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자주이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가 건설이 첫 번째 이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의 강조는 기존의 민족주의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기존의 민족주의가 국수적, 침략적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였다

58) 정용서, 「해방 후 천도교청우당의 정치운동」, 『한국사연구』, 165(2014, 6), 226.

59) 임형진, 「전위단체 운동사로 본 천도교 통일운동」, 『동학·천도교의 민족통일운동』, (서울: 동학민족통일회, 2005), 92-94.

60) 소춘김기전선생문집 편찬위원회, 『소춘 김기전선생 문집 3』, (서울: 국학자료원, 2011), 162.

면, 신민족주의는 고립과 의타가 아닌 자주적 노농민주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며, 세계를 일가로 하고 각 민족이 공통으로 공존공영의 생(生)을 도(圖)⁶¹⁾하는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세계주의를 기본 틀로 하면서 민족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1920년대 ‘범인간적 민족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제2강령인 사인여천은 ‘사람을 한울님처럼 섬겨라’는 동학의 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의 사상으로 신분위가 아닌 인본위사상에 맞는 새 윤리제도를 이룬다. 사인여천의 인간 존엄성에 바탕해서 민주주의의 숙제인 ‘자유와 평등’ 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고 개인과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삼경 윤리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까지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학의 인본주의 철학사상을 계승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새로운 윤리를 정립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물신화와 사회주의적 투쟁 일변과는 다른 인간과 자연에 내재한 불가침의 신성과 존엄성에 기반한 도덕문명국가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강령인 동귀일체의 신경제는 인간사회를 유기체로 보고 사회조직을 유기화하여 인체의 생명 원리에 맞게 모든 개인과 기관과 조직이 잘 어우러지고 건강하게 순환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귀일체의 경제는 자본주의의 비인간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강령인 ‘국민개로’란 불로소득으로 놀고먹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천도공리에 자재한 성(誠)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해석한다.⁶²⁾ 노동이 반드시 생계를 위해서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봉사이며, 자기의 재능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사회,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은 물론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것이 국민개로의 국가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령을 바탕으로 이후 김병제가 대표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천도교정치이념』(1947년 3월 31일 발간)에서 청우당의 이념 노선과 천도교의 건국이념을 ‘조선적 신민주주의’라고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형의 자본가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는다. 그는 자본제도의 내포한 모순과 폐해를 미리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련류인 무산자 독재의 프로민주주의도

61) 김병제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106-111.

62) Ibid., 117-118.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에는 일찍이 자본계급의 전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조선의 현단계에 적합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조선의 신민주주의란 어떤 것이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경중先後(輕重先後)의 차별 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이다. 조선의 자주독립과 아울러 조선민족사회에 맞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민주주의이다.⁶³⁾

‘조선적 신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식 프로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조선의 현실, 또는 현단계에 맞는 신민주주의이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함께 추구하는 민주주의이다. 여기서 민족개벽이라 함은 민족이 해방을 얻자는 것이고, 사회개벽이라 함은 자본사회의 제도를 개혁하여 무산계급을 해방하자는 것이다. 보국안민을 교리로 삼고 있는 천도교에서 보국은 민족해방, 안민은 계급해방으로 연결됐다.⁶⁴⁾

또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는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주문화, 민주도덕을 아울러 실현하는 민주주의이다. 앞의 강령을 정치, 경제, 문화, 윤리로 다시 분류해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민주정치는 시민계급이 정치경제의 실권을 쥐고 전인민이 정치작경제작 사회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민주경제란 앞서 언급한 동귀일체의 신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경제제도를 말한다. 민주경제는 경제권을 소수의 지주, 자본가로부터 인민 전체에 옮겨 놓으며, 계급적 대립이 없는 단일성의 민족경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적극적인 토지제도 개혁과 사유재산 제한과 더불어서 양국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계급해방은 투쟁이나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동학·천도교의 ‘사인여천(事人如天)’윤리와 ‘동귀일체(同歸一體)’ 정신에 바탕한 계급화해를 주장하였다. 정치와 경제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민주경제 없이는 민주정치도 명목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조선적 신민주주의’의 주안점이 오로지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문제의 해결이 가장 급선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⁶⁵⁾

한편 민주문화란 동귀일체의 신사회생활에 적합한 민주주의 문화를 말한다. 이는 봉건 사회 또는 자본주의 계급문화의 기형적 문화와 다른 우리 민족의 유구한 민족사와 찬연한 문화에 기반하되, 신시대 신생활에 적합한 민주적 신문화를 의미한다.⁶⁶⁾ 이를 위해 각 부

63) Ibid., 52.

64) 박세준, 『천도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국가와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79.

65) 김병제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61.

66) Ibid., 64.

문에서 봉건적, 일제적 모든 잔재를 청소하는 동시에 대중 생활을 향상시키고 대중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신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이돈화가 강조했던 ‘인간적 발휘’를 중시하는 ‘사회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윤리는 위에서 밝힌 사인여천 정신에 맞는 새 윤리를 말한다. 이는 봉건적인 계급 윤리와 자본 사회의 개인적 윤리를 넘어서자는 것으로 동학의 사인여천과 성경신, 삼경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원리가 소유와 투쟁을 넘어선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의 밑받침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조선식 신민주주의’에 나타난 정치이념은 앞의 청우당 강령에 비해서는 그 비전이 분명해지고,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신국가건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부족한 느낌이다. 『천도교의 정치이념』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자는 마치 집을 짓는 데에 기둥, 들보, 도리, 방목, 서까래 등 채목될 만한 것을 골라 놓은 데 불과할 뿐이요, 아직 먹줄을 치고 대패를 놓고 골을 파서, 자귀로 깎아서 사개를 맞추지는 못함과 같이 구체적인 이론적 체계와 현실적 정책을 완전히 내세우지는 못하였다.”⁶⁷⁾ 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함께 추구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자주국가, 도의적 문명국가의 건설을 추구했다는 데서, 기존의 문명개화나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틀로는 잡히지 않는, 그들이 1920년 이래 고민해 온 ‘개벽의 꿈’을 여전히 엿볼 수 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평가되듯이 손병희가 1900년대 들어서 갑자기 ‘문명개화’ 노선으로 선회하고 서양을 무조건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양을 시대적 대세로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서양문명 자체를 따라야 할 표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의 본의는 서양의 물질문명과 기술, 발달한 정치적 제도와 경제, 은행 제도 등을 받아들여 그보다 앞서 다시 동양 고대 성인들이 추구했던 ‘경천순천’의 도덕문명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도의적 신문명, 새로운 문명이 다시 도래할 것임을 그는 믿었고, 그것은 다름아닌 스승 수운의 ‘다시 개벽’의 비전을 계승하고 열망한 것이었다. 여기서 ‘도덕’은 성리학적 도덕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왕정의 복귀나 삼

67) Ibid., 8.

강오륜의 윤리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운이 다시 밝힌 도와 덕을 중심으로 서양의 문물을 잘 활용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이 어울어지고, 결과적으로 동서를 넘어서신 신문명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돈화와 김기전이 중심이 된 천도교 신파의 청년지도자들 역시 실력양성을 통한 서구적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의 근대문명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었다. 또한 ‘민족개량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부르조아민족주의 우파’ 등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그들의 본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에는 아쉬운 분석이었다. 그들은 이미 1920년대 초에 서양문명,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1923년 무렵에는 실력양성 운동과 문화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명확한 ‘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1923년 천도교청년당 창당을 통해 천도교의 인내천주의에 바탕한 7개부문의 청년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계급과 민족 사이에서, 저항과 타협 사이에서, 또 유물과 유심 사이에서 중도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들의 지향은 애초부터 『개벽』 잡지의 이름에서 표명했듯이 ‘개벽’이었다. 그것이 비록 명확한 비전과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고,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해방을, 그리고 일원론적 생명철학에 기반한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을 꿈꾸었던 것이다.

한편 해방공간에서 천도교청우당은 ‘청우당의 정치이념’을 기초하여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와는 다른 ‘한국적 신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고민하였다. 여전히 그 내용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1920년 이래 꾸준히 고민해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이자, 신국가 건설의 강령이었으며, 3.1독립선언서에 밝힌 ‘도의적 신문명’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에 다름아니었다.

결론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천도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서양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도 저항도 아니었다. 그들은 ‘개벽’의 전망에서, 수운이 깨달아 밝힌 동학을 당시 시대 속에서 재해석하면서 실천적인 민족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양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때로는 변용하면서 동서융합을 꾀했던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서를 넘어서신 신문명에 대한 열망이자, 동학 이래 수운이 추구한 개벽의 비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개벽』

『천도교회월보』

『天道敎靑年黨小史』,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東學思想資料集 3』,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黨聲』

『당지』

김병제 외, 『천도교의 정치이념』,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이돈화, 『수운심법강의』, 천도교중앙종리원포덕과편집실 편, 경성: 천도교중앙종리원, 1926년.

_____, 『신인철학』,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2³.

_____, 『동학지인생관』, 서울: 天道敎中央總部, 1972,

천도교중앙총부 편, 『천도교경전』,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93.

김경재, 「종교적 입장에서 본 현도 100년의 천도교」, 『동학학보』, Vol. 10 No. 1(2006), 319-348.

김용휘, 「천도교의 운동노선과 동도주의」, 『종교문화연구』, 27(2016, 12), 75-110.

_____, 『우리학문으로서의 동학』, 서울: 책세상, 2007.

_____, 『손병희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정인, 『천도교 근대민족운동 연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_____,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역사와현실』, 39(2001, 3), 232-259.

박민철, 「동학 천도교 사상의 모던적 징후」, 『시대와 철학』, 81(2017, 12), 7-35.

박재순, 『삼일운동의 정신과 철학』, 서울: 홍성사, 2015

박세준, 『천도교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국가와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손유경, 「『개벽』의 신칸트주의 수용 양상 연구」, 『철학사상』, 20(2005), 111-134.

성주현, 「천도교청년당의 지도이념과 조직체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2009), 381-416.

_____, 「해방후 천도교청우당의 정치활동과 통일정부수립운동」, 『문명연지』, Vol.2 No.2 (2001), 69-110.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 『근대를 다시 읽는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6.

이규성, 『한국현대철학사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병태, 「소춘 김기전(小春 金起田)의 서구 철학·사상 수용 특징- 저술의 분류와 개관에 기초하여」, 『시대와 철학』, 78(2017, 3), 143-189.
- _____, 「이돈화 ‘신인철학’에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비판」, 『시대와 철학』, 76(2016, 9), 199-239.
- 이승렬, 「일제하 천도교 계열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와 인간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2006, 3), 123-157.
- 윤승용, 「한국의 근대신종교,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착과 그 한계」, 『종교문화비평』, 22(2012, 8), 165-208.
- 소춘김기전선생문집 편찬위원회, 『소춘 김기전선생 문집 3』, 서울: 국학자료원, 2011.
- 이상익, 『서구의 충격과 근대 한국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 임형진, 『동학의 정치사상- 천도교 청우당을 중심으로』,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2)
- _____, 「전위단체 운동사로 본 천도교 통일운동」, 『동학·천도교의 민족통일운동』, 서울: 동학민족통일회, 2005.
-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1999, 6), 229-272.
- _____,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의 정치노선과 활동(1945-1948)」, 『한국사연구』, 125(2004, 6), 223-252.
- 정혜정, 「이돈화의 내재천주주의와 서구근대철학의 수용」, 『동학학보』, 19(2010, 6), 143-188.
- _____,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 혜안, 2001.
- 조규태,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이민인종연구』, 3(2010), 61-78.
- 조기간, 『천도교청년당소사』, 경성: 천도교청년당본부, 1935.
- 조성환,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9(2019, 2), 1-14.
- 최수일, 『‘개벽’ 연구』, 서울: 소명출판, 2008.
-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1, 동학·천도교편』, 서울: 혜안, 1996.
- 황종원, 「양수명과 이돈화의 근대화에 대한 견해 및 그 철학적 근거에 대한 비교 연구 - 한중 신문화운동 시기의 저작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36(2013, 3), 319-352.
- _____, 「이돈화의 우주관과 인간관이 지니는 동서융합적 특징 및 생명철학적 의의- ‘신인철학’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36(2016, 8), 587-616.

허수, 『이돈화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1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東學思想資料集 3』,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20세기 전반 천도교 지도자의 서양 인식과 신문명의 비전

김용휘

본고는 동학에서 천도교 시대로의 개편이 서구의 근대와 문명개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벽’의 관점에서 손병희와 천도교 청년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지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다.

손병희는 일반적으로 평가되었듯이 일방적으로 서구적 근대를 추구하거나 문명개화를 일방적으로 추구한 것이 아니다. 서양을 시대적 대세로 인정했지만, 서양문명 자체를 따라야할 표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수운이 다시 밝힌 도와 덕을 중심으로 서양의 문물을 잘 활용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이 어우러진 도덕문명, 도의적 신문명을 꿈꾼 것이었다.

이돈화와 김기전이 중심이 된 천도교 신파의 청년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지향한 것은 단순한 계몽이나 개조가 아니라 애초부터 『개벽』 잡지의 이름에서 표명했듯이 ‘개벽’이었다. 그들의 운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고,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해방이라는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을 꿈꾼 개벽운동이었다.

한편 해방공간에서 천도교청우당이 내놓은 ‘한국적 신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이념 역시 천도교 청년들이 1920년 이래 꾸준히 고민해 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고자 한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이자, 신국가건설의 방향이었으며, 3.1독립선언서에 밝힌 ‘도의적 신문명’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결론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천도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서양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도 저항도 아닌, 수운이 깨달아 밝힌 동학의 새로운 도덕에 바탕해 서양을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서융합의 신문명을 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천도교, 서양인식, 신문명, 손병희, 개벽

The Recognition about Western and the Vision of New Civilization of Cheondogyo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im, Yong-Hwi

This article begins with a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of the existing evaluation that the transition from Donghak to Cheondogyo is aimed at the modernization and civilization of the We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orientation pursued by Son Byeong-hee and Cheondogyo youth leaders from the perspective of “Gaebyeok”.

Son Byung-hee is not unilaterally seeking Western modernity or unilaterally civilization as it is generally evaluated. Although Western was acknowledged as a major trend in the times, it was not regarded as a standard to follow Western civilization itself. He dreamed of a new civilization in Cheondo(Tao, universal law) and a civilization in harmony with spirit and material by making good use of Western civilizations centered on the Tao and the virtue revealed by Suun.

The young leaders of Cheondogyo 'Shinpa', led by Lee Don-hwa and Kim Ki-jeon, were also aiming for “Kaebyeok” as expressed in the name of the “Gaebyeok” magazine from the beginning. Their movement was a gaebyeok movement that dreamed of transforming the fundamental civilization of universal human liberation beyond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beyond nationality and class.

On the other hand, the new political ideology of “Korean New Democracy” from “Cheondogyo-Chungwoodang” in the liberation space was also a search for a third way that the leaders of Cheondogyo have been struggling with over capitalism and

socialism since 1920. In addition, it was the direc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nation, and it was nothing more than an expression of the desire to realize the vision of the “new moral civilization” in the 3.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conclusion, what Cheondogyo leader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pursued was not blind acceptance or resistance to the West, but selective acceptance of the West by reinterpreting the 'Donghak' revealed by Suun in the era. Thus, what they pursued is the new civilization of the East-West Convergence, which can be seen as still inheriting the vision of the 'gaebyeok' of Suun.

Key Words: Cheondogyo, Western recognition, new civilization, Son Byeong-hee, Gaebyeok

논문 투고일	2020년 4월 14일
논문 수정일	2020년 5월 11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